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05
SEP 25 2019

발간년월 2019년 9월 25일 (통권 제105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 연구실 TEL +82-51-797-4665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극동러시아-인도, 블라디보스톡-첸나이 간 항로 개설 협의
- 러시아 의약품 수입액, 최근 10년 새 최대치 기록
- 극동인적자원개발공사, 기업에게 맞춤 전문인력 제공
-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예정
- 우크라이나, 동남부 항만 연계 사업 활성화 ... 미콜라이우는 곡물터미널 개장, 베르단스크는 풍력 발전 사업 연계

주요 통계

- 2019년 7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2019년 8월 26일 ~ 9월 1일)
-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2019년 1~3월, 1~6월 교통수단별 화물 수송량
- 2019년 1~3월, 1~6월 교통별 화물 수송량
- 2019년 1~3월, 1~6월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극동러시아-인도, 블라디보스톡-첸나이 간 항로 개설 협의

■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와 인도 정부는 블라디보스톡과 첸나이 간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함

- 9월 4일부터 6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인도 국가수반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협력 의지를 밝힘
- 이의 일환으로 양국은 블라디보스톡-첸나이 간 항로 개설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함

■ 블라디보스톡-첸나이 간 항로를 통해 기존 항로 대비 단축된 운송기간, 주요 아태지역 경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계 가능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인도에서 극동러 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 항로의 운송기간은 약 40일인 반면, 신규 항로는 약 24일로 16일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규 항로는 한국, 대만, 필리핀, 남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통과함

조지성 전문연구원

(051-797-4916, jjsungjo@kmi.re.kr)

참고자료

- <https://www.indiatoday.in/news-analysis/story/modi-at-eastern-economic-forum-why-india-is-so-interested-in-russian-far-east-1595915-2019-09-05>(검색일: 2019년 9월 17일)
-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chennai-vladivostok-sea-route-to-make-it-near-east/articleshow/60486508.cms>(검색일: 2019년 9월 17일)

러시아 의약품 수입액, 최근 10년 새 최대치 기록

■ RNC Pharma는 2019년 7월 기준 러시아의 의약품 수입액이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함

- 2019년 7월까지 러시아의 의약품 수입액은 약 620억 루블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한 수치임
- 2019년 7월 러시아는 약 18억 개의 의약품을 수입함
- 2018년 EAEU 역내로부터의 수입액은 26억 루블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수입 대상국은 글로벌 제약회사가 위치한 미국과 유럽일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의약품의 실공급량의 증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7.3%에 그쳤는데, 이는 수입 의약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 수입액 상승을 이끈 모스크바의 제약회사 브리스틀 마이에르스 스킵(Bristol-Myers Squibb)는 7월 한 달간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약 50억 루블 상당액의 의약품을 수입
- RNC Pharma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의약품 수입액은 3,336억 루블에 달하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5% 증가한 수치임

■ 러시아 정부는 'Pharma 2020' 정책을 통해 러시아 제약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동 정책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혁신 의약품의 50%, 중요 의약품 (Vital and Essential Drugs List)의 90%를 러시아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로 의약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중요 의약품의 러시아 생산 비중은 약 60%임
- 2017년, 시장조사기관 DSM에 따르면 러시아 의약품 시장의 과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1%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러시아 내 제약공장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공장들은 대부분 내수용 의약품을 생산하고 거의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약품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a) 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lekarstvennyy_import-_ustanovil_rublevyy_rekord_desyatiletiya.html (2019년 9월 20일 검색)
- b) 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fizrastvor_rossiya_zakupaet_u_-soyuznikov-_v_krupnoy_i_osobo_krupnoy_rasfasovkakh.html (2019년 9월 20일 검색)
- c)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8160&searchNationCd=101093> (2019년 9월 20일 검색)

극동인적자원개발공사, 기업에게 맞춤 전문인력 제공

■ 극동러 지역의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구현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하며 국가지원 프로그램 및 극동인적자원개발공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동지역으로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 러시아와 극동을 대표하는 ‘즈베즈다’ 조선소는 극동인적자원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석에 알맞은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중임

- ‘즈베즈다’ 조선소는 러시아와 극동을 대표하는 조선소로 일반 선박뿐만 아니라 최대 35만 톤급의 쇄빙 선박, 북극에서 연중 내내 작동 가능한 시추 플랫폼 및 대륙붕에서 천연 자원 채굴이 가능한 해양 장비 등을 건설할 계획임
- 현재 조선소는 39척의 선박건조를 주문받았으며 약 3,000명이 조선소에서 근무 중으로 이 중 약 87%는 극동 거주자임

■ ‘즈베즈다’ 조선소의 올해 필요인력은 약 4,000명이며, 이와 같은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동 조선소는 2015년 말부터 극동인적개발공사와 협력하고 있음

- 필요한 인력 중에는 설계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인력이 핵심으로, 이 경우 조선분야 등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약 5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함
- 전문인력 탐색과정에서 극동인적자원개발공사는 극동 주요 포털과 대규모 조선업체가 있는 아스트라한, 칼리닌그라드, 키로프, 무르만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 세베로 드빈스크, 소스노브카 등에 채용 공고를 냄
- 평가 대상 주요 자격 요건으로는 조선 또는 기계공학분야 전공, 대기업 업무 경험, 설계 경험, 프로젝트 문서개발, 모델링, 특수 프로그램 작업 등의 경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임
- 최종 합격자는 극동인적자원개발공사와 인터뷰를 한 후 ‘즈베즈다’ 조선소 설계 엔지니어 대표로 채용됨
- 이번에 채용된 전문인력은 해당 분야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기 및 조선분야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3D모델 구축, 장비설계, 전문 프로그램 자격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참고자료

a) <https://minvr.ru/press-center/news/23452/>(검색일: 2019년 9월 21일)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예정

■ 2018년 9월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나망간(Namangan) 주의 주도 나망간 시에 소재한 추스트(Chust) 지구에 자유경제구역 설치를 공식 발표함

- 추스트 자유경제구역은 농산물 가공, 섬유가공, 식품가공, 가전제품 제조, 건축자재 보관 등이 가능한 종합적인 공단으로 성장하는 데에 목표가 있음
- 해당 자유경제구역에 입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년까지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아울러 투자 규모에 따라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어, 자국 내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 유치에도 힘쓰고 있는 실정임

■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는 나망간 지역에 40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기로 결정

- 태양광 발전시설은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스트 지구를 포함하는 자유경제구역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함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천연가스를 통한 에너지 소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외 석유 및 석탄이 이용되고 있으나, 에너지 다변화 정책의 흐름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지난 2013년 3월,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사마르칸드 시 근처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계기로 본격 시작되었음
- 특히 일조량이 많은 지리적 여건과 현 정부의 경제개방 전략이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부문 해외 투자를 받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나망간 지역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외국계 에너지 기업인 헬리오스 에너지 그룹(Helios Energy Group)이 투자하기로 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2031년까지 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은 향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활용 지하자원의 가채 연수는 30년 정도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의 다변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 우즈베키스탄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울러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지만, 태양전지 패널 제작 기술 및 기타 첨단기술 사용에는 아직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해외기술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오상호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www.pv-magazine.com/> (2019.9.21. 검색)
- b) <http://www.uzkoreconomy.com/> (2019.9.21. 검색)
- c) <http://tashkenttimes.uz/> (2019.9.21. 검색)

우크라이나, 동남부 항만 연계 사업 활성화 … 미콜라이우는 곡물터미널 개장, 베르단스크는 풍력 발전 사업 연계

■ 9월 24일 미콜라이우(Mykolaiv, 러시아어 니콜라예프Nikolaev)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룹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곡물터미널이 완공 및 개장하였음

- 이는 2월 3일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Posco International)과 우크라이나 측 오렉심 그룹(Orexim Group)의 공동 출자 합의가 성과를 나타낸 것이었음.
- 곡물터미널은 오렉심 그룹의 계열사 미콜라이우 제빵 콤비나트(Mykolaiv Milling Works) 부지에서 건설되었으며, 1회 최대 14만 톤의 곡물을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음
- 곡물터미널 지분의 75%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귀속되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신규 곡물터미널을 통해 연간 3백만 톤까지 수출량을 증대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수출량 증대 계획에는 사설 철도차량기지 건설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미콜라이우 소재 해운 전문 항만 운영업체인 니카-테라(Sea Specialized Port «Nika-Tera»)는 항만 설립 이래 최대의 물동량을 기록하였음

- 9월 23일 시 도브(Sea Dove) 호에 곡물이 선적되면서 니카-테라 항의 환적량은 항만시설 설립 이래 최대 수치인 6백 만 톤을 기록하였음
- 이는 해당 업체가 처리한 2018년 전체 물동량인 584만 톤을 9개월 만에 초과 달성한 것이었음

■ 한편 베르단스크(Berd'yansk) 항에서는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발전기 부품 하역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

- 베르단스크 상업항(Berd'yansk Sea Commercial Port; 아조프 해 북부 연안에 위치) 측은 최근 프리모르스카 풍력발전소 2단계 프로젝트(Primorska Wind Farm-2)를 위한 발전기 부품 일체 하역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하역 작업에는 항만 관리사업소 소속 2, 3, 4번 부두의 태스크포스 팀이 참여, 10개 부품 중 2개의 타워 부품을 처리하였음
- 2019년 1월에는 프리모르스카 풍력발전소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기 부품 26개가 전체가 운반되었으며, 7월에는 2단계 사업용 발전기의 허브, 블레이드, 터빈이 베르단스크 항을 통해 하역

된 바 있음

- 한편 프리모르스카 풍력발전소는 자포리자 주(Zaporizhia, 러시아어 자포로제Zaporozhye) 프리모르스키 군(Primorskyi District)에 위치해 있으며, 1단계 발전기 조립이 완료 및 가동 중임

그림 2. 우크라이나 베르단스크 항에서 하역 중인 풍력발전기 부품



조용성 현지리porter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f%d0%be%d1%80%d1%82-%d0%bd%d1%96%d0%ba%d0%b0-%d1%82%d0%b5%d1%80%d0%b0-%d0%b2%d0%bf%d0%b5%d1%80%d1%88%d0%b5-%d0%b4%d0%be%d1%81%d1%8f%d0%b3-%d0%be%d0%b1%d1%81%d1%8f%d0%b3%d1%83-%d0%bf/2019/09/24/> (2019.9.24. 검색)
-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orexim-group-i-posco-international-company-%d0%b1%d0%b5%d1%80%d0%b4%d1%8f%d0%bd%d1%81%d1%8c%d0%ba%d0%b8%d0%b9-%d0%bf%d0%be%d1%80%d1%82-%d1%83%d1%81%d0%bf%d1%96%d1%88%d0%bd%d0%be-%d0%be%d0%bf%d1%80%d0%b0%d1%86%d1%8e%d0%b2%d0%b0%d0%b2-%d1%87/2019/09/24/> (2019.9.24. 검색)
- <https://ports.com.ua/news/gosstividor-bmtp-peregruzil-novuyu-partiyu-vetroenergeticheskogo-oborudovaniya> (2019.9.24. 검색)



표 1. 2019년 7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수역	11.88 (-1.2%)	6.4 (+0.4%)	18.28	+0.5%
북극해	2.71 (-0.5%)	6.38 (-3.2%)	9.08	-2.2%
발트해	9.28 (+0.5%)	12.04 (+0.6%)	21.32	+0.5%
아조프-흑해	10.32 (+3.5%)	14.7 (+1.3%)	25.02	+2.2%
카스피해	0.3 (+5.9%)	0.37 (+210.63%)	0.68	+2.9%
합계	34.51 (-0.8%)	31.88 (-0.4%)	74.38	+0.6%

* 주: 극동수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75,956.5	76,596.4	375,092.0	76,479.3	864.5	117.1
광물 제품	1,100,495.0	6,460.2	1,100,494.7	6,460.2	0.3	0.0
연료 및 에너지 제품	993,070.1	5,846.4	993,069.8	5,846.4	0.3	0.0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471.6	71,583.2	4,052.9	71,323.9	418.7	259.3
가죽원료, 모피 제품	7.9	1,304.4	7.9	1,304.4	0.0	0.0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2,832.5	6,927.4	92,739.8	6,795.0	92.7	132.4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23.4	36,490.7	122.8	36,489.2	0.6	1.6
금속 및 금속 제품	48,909.5	53,060.8	48,795.3	52,605.7	114.1	455.1
기계류	20,491.7	447,400.5	20,298.3	447,383.9	193.5	16.6
기타	174,976.0	40,245.3	174,868.2	40,245.3	107.8	0.0
합계	1,818,264.1	740,068.9	1,816,471.8	739,086.9	1,792.3	982.0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2019년 8월 26일 ~ 9월 1일)

연방관구	어종	1kg당 가격	가격 변동률	
			주간	8월 26일 ~ 9월 1일
극동 연방관구	태평양 대구	175.0	0.0%	-11.6%
	명태	107.0	0.0%	+9.2%
	태평양 청어	58.0	0.0%	+16.0%
	가자미	97.0	-1.0%	+7.8%
북극해	해덕대구	208.0	0.0%	-1.0%
	대서양 대구	250.0	+0.8%	-15.3%
	고등어	122.0	+1.7%	-2.4%
	대서양 청어	72.0	+2.9%	+2.9%
발트해	고등어	130.0	+2.4%	0.0%
	명태	125.0	+1.6%	+6.8%
	열빙어	115.0	0.0%	+130.0%
	대서양 청어	85.0	+2.4%	+16.4%

표 4.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0	0	0	7	0	0	0	7	-	-	-	-
냉동어	106,307	175,439	1,796	3,038	106,307	175,439	1,796	3,038	0	0	-	-
연어류	6,993	23,366	-	-	6,993	23,366	-	-	0	0	-	-
넙치	612	2,969	-	-	612	2,969	-	-	-	-	-	-
가자미	383	490	-	-	383	490	-	-	-	-	-	-
가자미류	5,835	5,244	-	-	5,835	5,244	-	-	-	-	-	-
청어	8,885	25,027	-	-	8,885	25,027	-	-	0	0	-	-
대구	57,267	78,190	-	-	57,267	78,190	-	-	-	-	-	-
명태	152	287	-	-	152	287	-	-	-	-	-	-
농어	3,038	15,618	-	-	3,038	15,618	-	-	-	-	-	-
간, 곤이 (어란)	1,245	2,100	-	-	1,245	2,100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959	3,037	-	-	959	3,037	-	-	-	-	-	-
생선필렛, 어육	9	157	49	146	9	157	49	146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8,626	135,282	106	617	8,626	135,282	106	617	-	-	-	-

갑각류	7,666	127,632	2	65	7,666	127,632	2	65	-	-	-	-
계류	3,977	12,720	-	-	3,977	12,720	-	-	-	-	-	-
조개류	202	503	-	-	202	503	-	-	-	-	-	-
가리비류	3,104	6,330	-	-	3,104	6,330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843	3,276	64	252	843	3,276	64	252	-	-	-	-
수산무척추동물	555	1,915	-	-	555	1,915	-	-	0	0	-	-
해삼류	289	1,361	-	-	289	1,361	-	-	0	0	-	-
성게류	0	0	-	-	0	0	-	-	-	-	-	-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5. 2019년 1~3월, 1~6월 교통수단별 화물 수송량

(단위: 백만 톤, %)

교통수단	2019년 1~3월	2019년 1~6월	2018년 1~3월 / 2019년 1~3월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철도운송	319.0	634.3	100.7	98.4
자동차운송	326.4	717.7	89.7	94.2
해운	4.82	9.25	94.2	81.9
내륙수로운송	6.49	33.4	96.1	82.6
항공운송	0.241	0.527	94.0	95.7
합계/전년 동기간 대비 수송 비율	657.0	1,395.2	94.9	95.7

참고자료

a) <https://www.mintrans.ru/ministry/results/180/documents>(검색일: 2019년 9월 21일)

표 6. 2019년 1~3월, 1~6월 교통별 화물 수송량

(단위: 백만 톤, %)

교통수단	2019년 1~3월	2019년 1~6월	2018년 1~3월 / 2019년 1~3월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철도운송	1,422.2	3,136.2	99.2	99.4
자동차운송	319.0	634.3	100.7	98.4
해운	1,091.6	2,458.7	98.8	100.0
내륙수로운송	4.82	9.25	94.2	81.9
항공운송	6.49	33.4	96.1	82.6
파이프라인운송	0.241	0.527	94.0	95.7
합계/전년 동기간 대비 수송 비율	1,728.5	3,717.5	98.9	99.3

참고자료

a) <https://www.mintrans.ru/ministry/results/180/documents>(검색일: 2019년 9월 22일)

표 7. 2019년 1~3월, 1~6월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단위: 백만 명, %)

교통수단	2019년 1~3월	2019년 1~6월	2018년 1~3월 / 2019년 1~3월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자동차운송(버스운송)	2,516.8	5,127.1	97.1	97.3
해운	1.080	2.58	68.9	64.1
내륙수로운송	0.336	3.76	89.7	76.3
항공운송:	24.751)	57.681)	112.1	111.6
국내운송	14.81	33.19	108.1	109.2
철도운송:	260.0	575.5	104.7	103.5
교외운송 (도시운송 포함)	236.5	522.8	104.5	103.2
합계/전년 동기간 대비 수송 비율	2,803.0	5,766.6	97.9	98.0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 a) 러시아 연방 항공운송협회 자료
- b) <https://www.mintrans.ru/ministry/results/180/documents>(검색일: 2019년 9월 22일)